

광주 첫 확진자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광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7일간 한 자릿 수에 그치면서 확산세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기르는 반려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남에서는 타 지역의 n차 감염으로 인한 지역감염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어 개인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첫 반려동물 양성 판정
광주시는 7일 “지난 4일 코로나19 확

진 판정을 받은 A씨가 키우고 있는 반려묘가 전남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광주에서 처음이며, 전국에선 7번째다.

앞서 진주, 서울, 세종, 경기 광주 등에서 6건 (고양이 3, 개 3)의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지난 4일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의 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 위생시험

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1차 양성 사례를 보고했으며 검역본부는 2차 확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했다.

◇체육·관광·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
방역당국이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앞서 체육, 관광, 종교 등 야외 시설의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축구·야구·게이트볼·테니스 등 공공 체육시설 97곳, 풋살장 20곳, 볼링장 33곳 등 150개 실내의 체육시설 실태를 파악한다.

시설 관리자가 없으면 5인 이상 체육 활동을 금지한 규정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음식물 섭취 금지 등 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관광지와 유원시설 75곳에서도 이달 말까지 행락객과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종교 시설의 주일 예배 등 상황을 관리했다.

좌석 수 30%,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식사와 모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7일간 한자릿수 안정세 속 동물 양성 판정 나들이철 앞두고 야외시설 방역 점검 강화

◇전남, 타 지역 n차 감염 이어져
전남에서는 여수와 함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내 6명(여수 3명, 함평 2명, 장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876-881번으로 분류됐다.

여수 거주 전남 876-878번은 전남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전남 875번의 가족으로 접촉자 진단검사 과정에서 양성 이 나왔다.

전남 875번은 재가 담당 요양보호사 로,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진단검

사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요양보호사는 시설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차 백신접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 거주 전남 879번은 도봉구 894번 접촉자다.

함평 거주 전남 880-881번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888번의 접촉자다. 888번의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겨울·임후성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 구례 천은사에서 열린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를 마치고 탐방로 주변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금지사, 주말 구례 관광활성화 현장 점검

천은사 탐방로 준공식 참석...쌍산재서 전남 정원화 구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 천은사와 쌍산재 등 구례지역 관광활성화 현장을 점검했다.

천은사는 2019년 산문 개방 후속 조치로 운영기반 조성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완료,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김 지사와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엄사 주지, 천은사 주지 등 천은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에 참여했던 8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했다.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 사업엔 전남도와 구례군이 찾집 및 휴게소 리모델링을, 환경부가 천은재 주변 수변데크길, 금길 탐방로 조성 등을 지원했다. 문화

재청은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원,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꾸몄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관광객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폐지 이후 천은사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지난해 45만명이 방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 제5호 민간정원인 쌍산재를 방문했다. 쌍산재는 개인이 만들고 가꾼 아름다운 공간을 도와 구례군에서 발굴·지원해 전남 정원관광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곳 중 하나다.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연과 운운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2018년 10월 전남 민간정원으로 등록

된 이후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2018년 2만8천명, 2019년 3만명, 코로나19 상황과 tvN ‘윤스테이’ 촬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휴원한 지난해에도 3만6천명이 다녀갔다.

‘쌍산’은 운영자인 해주씨 오경영씨 고조부의 호 쌍산에서 따왔다. 친분이 두터웠던 마을 주민이 타지로 이사하자 두 가문이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고 두 개의 산처럼 세상에 덕을 쌓으며 살자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김영록 지사는 “임기 초부터 생활 곳곳에 큰 나무를 심고 정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쌍산재처럼 하나씩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원을 계속 확충해 도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상생카드 출시 2년 만에 1조80억원 돌파

195만4천972장 발행...6월까지 10% 할인 지속

광주시의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누적 사용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광주시는 7일 “광주상생카드가 2019년 3월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사용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863억원에서 2020년 10배가 넘는 8천641억원이 발행됐고, 지난달 기준 발행액 1조1천38억원, 사용액 1조80억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해 기준 총 195만4천972장이 발행됐고 이중 체크카드는 13만5천291장 3천938억원, 선불카드는 181만9천681장, 7천98억원이 발행됐다.

상생체크카드는 발급가능 연령 만 14세 이상 인구 125만명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3만-50만원의 다양한 권증으로 발급하고 선 할인되는 선불카드는 50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광주상생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3천938억원, 선불카드 6천142억원, 총 1조8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용액은 모두 시·소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2천831억원으로 28%가 사용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트·슈퍼 등 유통업이 2천299억원으로 20%, 병의원 17%, 교육비, 교통비, 이·미용, 여행·취미, 의료·치화 순으로 사용됐다. /정겨울기자

전남도, 도로 정비 ‘부실 시공 제로화’ 박차

국지도 등 70개 지구 건설 시공 총력

전남도가 도로 정비 부실 시공 제로화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7일 “우담불파(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다)를 도로 정비 사업 슬로건으로 정하고 국가지원지방도 등 70개 지

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 대상인 국가지원지방도는 6개 지구 42km 802억원, 지방도는 57개 지구 209km 799억원 규모다. 신속 집행 목표율은 80%다. 전남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집행부진 현장은 예로·건의사항을 발굴·지원해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점검에 나선다. 안전조치 이행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인 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김재정기자

▶1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서 계속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행해야 할 것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곳은 수량, 중외, 신용 등 3곳 뿐이다. 나머지 7곳(중앙1·2, 일곡, 운암산, 마루, 봉산, 송암)은 사전 준비 단계다.

하지만 도시계획 위원 초과 위촉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달 새로 구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사업자는 “3개 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9월 마쳤음에도 타 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 안전 상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각 공원마다 사업자가 다른 만큼 개별 진행해야 하는데도 시가 타 지구 상황을 감안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자는 “한 달만 연기돼도 P 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금액에 대해 수십억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달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전 상정이 안돼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중 도 포기 등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위원회 1회 당 안전 상정이 4건으로 제한돼 있어 누락 안전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자간 내분, 분양가 이슈 등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다른 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간이 지연되면 토지 가격 상승분이 생겨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 공원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령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김승휘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3.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임선숙 강성두**
고 문 **오세욱**
변호사 **서예련 이병주 고영석**
김정호 장은백 전민규 박석원 김미강

• 업무개시 : 2021. 3. 2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 대표전화 : (062) 233-1600 팩스 : (062) 223-1472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수철(50101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재판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의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노단118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김현일

○한정승인수리일: 2021년 2월 18일

○공고기간: 2021년 3월 8일 ~ 2021년 5월 8일

○연 락 처: 광주 서구 경열로 151-10 (양동) (010-4601-652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필자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CMYK